

민주전사들이 띄우는 희망의 전언

서승·김남주·문익환 등 '양심의 법정'에서 이긴 이들의 증언 이어져

조국과 민중을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쇠창살에 가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정의로운 목소리를 옥죄어오만 안심했던 그런 권력이 있었다.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을 끝내 저버릴 수 없기에 마지막까지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차가운 감옥의 담배락 아래 핀 꽃다지에서 우주적 사상을 단련한 그런 정신이 있었다. 아둑고 습기찼던 독재와 분단의 시대를 증언하는 우화들이다.

그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참혹한 시대를 온몸으로 뚫고 나온 '불의 전사'들이. 지난달 25일 세계 최장기수로 41년을 복역한 우용각씨를 비롯, 비전향장기수 17명이 철창문을 나섰다. 작고한 문익환 목사, 서승씨 등도 복권됐다. 지난해에는 소설가 황석영·김하기, 시인 박노해 등이 풀려났다. 그들이 떠나가는 90년대를 향해 저항과 희망의 전언을 띄워보내고 있다. 시와 소설, 기행문과 옥중서신 등 형식은 다를지라도 인간과 시대에 대한 희망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책에서 듣는 민주투사들의 말과 글

서승—"이데올로기 시대는 끝났다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사상이나 신조를 지키기 위해 감옥 안에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나쁜 의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해가는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다. 폭력이나 강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투쟁은 어떤 세상에서도 귀중하다." 《서승의 옥중 19년》

김남주—"인간은 만인을 위해서 일할 때 참된 행복감에 젖으리라는 생각. 제 노동의 산물이 만민의 손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느끼는 인간의 기쁨. 아, 내가 바라는 세상은 각자가 노동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편지》

신영복—"여행은 돌아옴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돌아옴이며 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직한 귀향이며 겸손한 만남입니다. 이 정직한 귀향과 겸손한 이해가 없는 한 서로 다른 세계가 평화롭고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아픈 과거로부터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떠나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숲》

박노해—"만물은 서로 핏줄처럼 맺어져 있고/땅위에 다친 일은 그 땅의 아이들에게도 다칠 것이니/이 땅에 짓는 사랑은 곧 인간에 짓는 사랑의/바탕 뿌리임을 굳게 믿습니다/새봄에도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사랑의 노동을 지어가게 하소서/좋은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사이좋게 해나가게 하소서" 《세기말 성자의 기도》

빼앗길 수 없는 양심의 자유

'재일교포학생학원침투간첩단사건'으로 체포돼 19년을 복역하다 90년 풀려난 비전향 장기수 서승씨. 4년의 침묵을 깨고 94년 일본에서 출간한 《옥중 19년—한국 정치범의 투쟁》이 지난달 《서승의 옥중 19년》(김경자 옮김, 역사비평사)으로 번역돼 나왔다. 이 책은 '거대한 인간창고'에서 어두운 세월을 보낸 한 개인의 옥중 19년사이자 비전향 장기수의 역사이며, 한국 교도소의 실상에 대한 증언이다.

그가 집요한 사상전향 공작을 뿌리치면서 끝내 비전향 장기수로서의 삶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최소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양심 내지는 존재를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홍보한 권력에 굴복해 양심까지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한 개인의 죽음, 그것도 시대와 같이 호흡했던 사람의 죽음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추문화시키기도 한다. 혁명의 시인 김남주와 민주화 투쟁의 실천적 스승이었던 문익환 목사의 죽음이 그렇다. 죽음으로써 민주화의 제단에 각인된 그들의 넋이 문자로 다시 부활했다. 김남주 시인의 옥중 연서를 모은 《편지》(이름)와 그의 서정시집을 엮은 《옛마을을 지나며》(문학동네), 전12권의 거질로 집약된 《문익환 전집》(사계절)이 민주화의 성전에 헌정됐다.

"나의 시는 해방투쟁의 부산물"이라고 정의했던 김남주 시인의 《편지》와 《옛마을을 지나며》는 우유곽에서 뜬어낸 은박지에 못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새긴 사랑과 서정의 선

율을 들려준다. "사랑만이/겨울을 이기고/봄을 기다릴 줄 안다//...//그리고 가실을 끝낸 들에서/사랑만이/인간의 사랑만이/사과 하나 둘로 쪼개/나눠 가질 줄 안다" (<서시>)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의 '전사'의 갑옷 깊숙이 새겨져 있던 '보편인' 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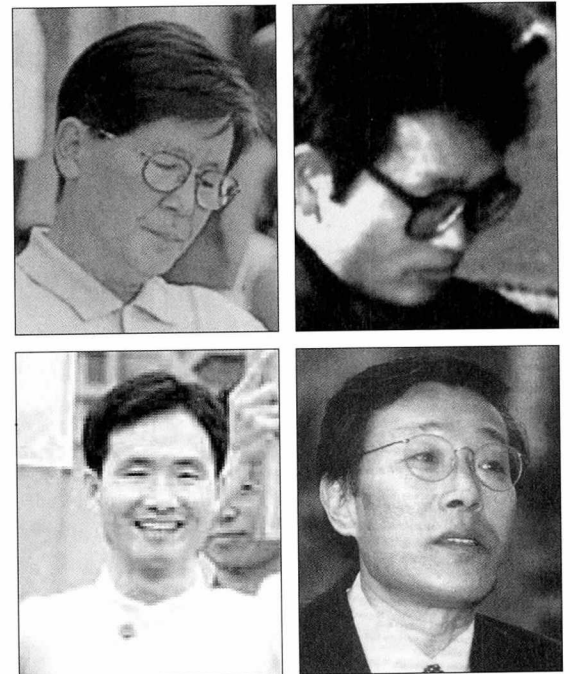
《문익환 전집》은 문익환 목사 추모 5주기에 맞춰 출간됐다. 문익환 목사의 전모를 담은 이 전집은 시집과 옥중서신 그리고 신학과 통일관련 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발표됐거나 출간되지 않은 원고를 모았다. 특히 《옥중서신 1·2·3 건강》은 11년 넘은 감옥생활에서 바깥에 있는 부자유한 이들에게 띄운 위안과 희망의 기록이다.

문명의 허위에 대한 비판

간헐 자들에게 가장 큰 바람 중의 하나는 세상을 자유롭게 걸어보는 것이다. '동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걷는 자유를 박탈당했던 신영복 교수(성공회대)는 2년 동안 나라안팎을 여행하면서 두권의 여행기를 펴냈다. 국내 여행 산문집인 《나무야 나무야》(돌베개)와 해외 여행기인 《더불어 숲》(중앙M&B)이 그것.

그는 옥중서한집 《감옥으로부터의 사색》(햇빛출판사)부터 묵향 가득 단아한 문체로 문명의 허위를 비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한 열망을 보여줬다. "어느 곳의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존중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가 이곳저곳을 편력하면서 얻은 깨달음이다.

가장 뒤늦게 우리 곁으로 돌아온 두명의 작가가 있다. 노동해방의 시인 박노해와 금단의 땅 북녘산하를 밟았던 소설가 황석영이 그들이다.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8월 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박노해는 계간 《창작과 비평》 봄호에 <내가 걷는



윗줄 왼쪽부터 신영복·김남주·박노해·황석영씨.

이유》의 9편의 시를 발표했다.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부정하다가/그만 낚은 것들을 닦아버린"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도 "온몸으로 깨쳐온 진리"를 설교한다. "꿈을 혼자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꿈을 모두 함께 나누어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깨달음이다.

지난해 3월 13일 사면된 황석영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재개했다. 현재 1천여장 분량의 장편소설 《손님》을 집필중이고 올해 초부터 《동아일보》에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을 연재하고 있다. 《손님》이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신천에서 벌어졌던 좌우익간의 대학살을 그린 소설이라면, 《오래된 정원》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여러 시대의 종족들이 제작기 그러은 이상향을 두 남녀의 사랑의 여정을 통해 형상화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명제가 있다. 인간은 '양심의 법정'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 계급모순과 분단모순이 증첩된 한반도에서 인간해방과 민족통일을 꿈꾸던 해방의 전위들이 90년대에 띄우는 메시지는 이 진리를 향한 싸움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의 횡포와 경박한 풍조가 만연한 세기말에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만 하는 까닭이다.

—박천홍 기자